

그·날·의·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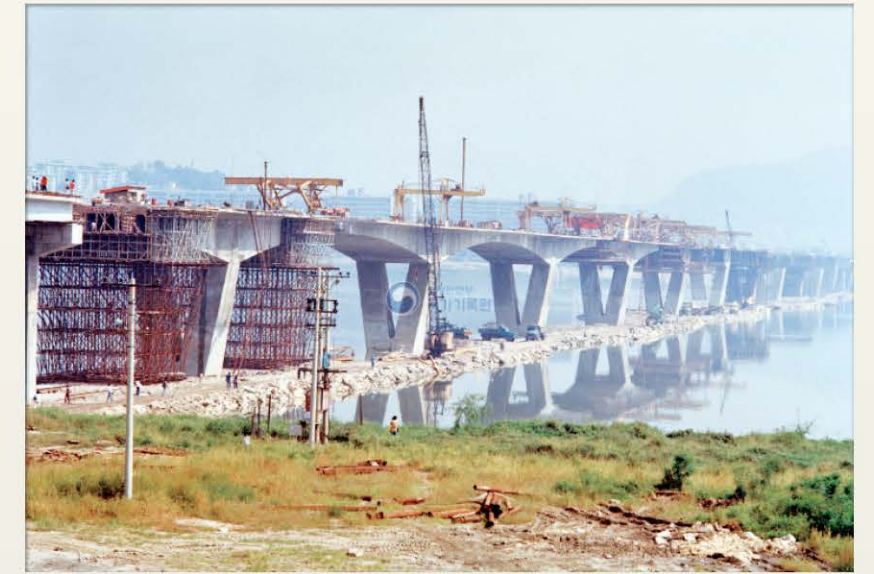
1981년 10월 27일

그날, 원효대교가 개통되었다



1981년 10월 27일, 용산구 원효로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원효대교가 1978년 7월 17일에 착공하여 3년 3개월 만에 개통되었다. 원효대교는 13번째 한강 교량으로 공사사인 동아건설에서 공사비 225억 원 전액을 부담한 민자사업의 장경간 연속 PSC 박스 거더교이다.

당시 이 교량을 건설하는 조건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동아건설이 200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하였다. 개통 초기에는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1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차량통행이 워낙 적은데다 통행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통행을 기피하면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해 1983년 2월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현재 원효대교 남단의 연결램프 진출입차선 구간이 다른 교량에 비해 넉넉하고 긴 이유가 바로 개통 초기 톨게이트가 설치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효대교는 장경간 연속 PSC 박스거더교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Dywidag 공법과 프리 캔틸레버 공법(Free Cantilever Method)이 사용되었는데, 콘크리트 변단면 박스거더 교량으로서 경간너비가 100m로 넓은 축에 속한다. 교량의 높이는 구조물 응력선을 따라 변화하게 설계해 교량의 하단이 진행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외관이 매우 아름답고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다는 평을 받았다. 1981년 개통 당시 한강 횡단교량 중 구조물의 기능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미적인 면을 고려한 교량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것은 기술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아카이브